

연제 지역아동센터 영예의 최우수상 수상

‘2021 광주매일신문 NIE 지역신문만들기 대회’ 시상식 성료

‘신문과 친해지기’ 목표 달성...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성과’
협동심 및 책임감 고취...지역사회 내 아동센터 역할 알리기도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2021 광주매일신문 NIE 지역신문만들기 대회’ 시상식이 21일 본사 TV스튜디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지역신문 만들기’는 광주지역 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글과 사진을 통해 신문이라는 결과물로 만드는 사업이다.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12일 창의성, 전달력, 신문편집, 참여인원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연제 지역아동센터가 최우수상을, 지원 지역아동센터와 예틀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나눔꿈 지역아동센터, 오치 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됐다.

또 목련 지역아동센터, 도담 지역아동센터, 풀꽃친구 지역아동센터는 특별상을 받았다.

미리내 지역아동센터와 정다운 지역아동센터는 입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제 지역아동센터는 ‘신문과 친해지기’라는 NIE 교육 목표에 가장 부합했다. 아이들이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운 것은 물론 신문 제작 열의 또한 돋보였다. 특히,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센터 역할 등에 대한 알리미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NIE 신문 만들기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아주 크다”며 “광주매일신문은 아이들이 신문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센터를 지원해가겠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욱 연제 지역아동센터장은 “30명 가까이 되는 센터 아이들 대부분이 성실하게 신문 만들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며 “서로 협동심으로 하나 돼 신문을



21일 오전 본사 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1 광주매일신문 NIE 지역신문만들기 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연제 지역아동센터가 최우수상을, 지원 지역아동센터와 예틀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영근기자

만들어 낸 아이들이 자랑스럽다. 내내에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아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 대표 학생으로 참여한 연제 지역아동센터 조서영(연제초5)양과 정민정(연제초6)양은 “뜻하지 않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며 “친구들과 함께 센터에서 참여한

프로그램들로 직접 기사를 써보니 뿌듯하고 보람찼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심사를 맡은 최갑남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은 “아이들이 신문 제작 교육에 적극성과 성실성을 갖고 꾸준히 참여했는지를 중점으로 결과보단 과정에 점수 반영을 했다”며 “이번 NIE 신문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쌓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상 작품은 오는 25일까지 전시된다.

한편, 본보 NIE 신문만들기 사업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 지역 5개구 7곳의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총 4차례의 교육이 진행됐다. /최명진기자



일상 회복 염원 담은 ‘영산재’ 펼쳐진다

내일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온라인 생중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영산재(靈山齋)가 이번 주말 관객들을 찾아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무형문화재 초청무대로 (사)광주전통불교영산회의 영산재 공개시연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영산재(靈山齋)는 49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불교 천도예례 중 대표적인 제사로 일명 ‘영산작법(靈山作法)’이라고도 한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지난 2014년 7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광주영산재’가 지정됐다.

이날 시연 무대는 범음법패와 바라춤, 그리고 작법 분야의 전문 스님들이 각각 시연자로 나와

시련작법, 신중작법, 대령관육, 상주권공, 관음시시 등 영산재 주요 의식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영산재 도량에 불, 보살, 윤희성중영가를 청해 보는 의식 ‘시련’이며,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청해 모시는 절차 ‘신중작법’이, 목탁을 치는 스님을 선두로 소라, 북, 좌발, 호적으로 구성된 취타대에 맞춰 연(儼)에 모신 영가를 도량으로 인도하는 의식 ‘대령관육’ 등이 이어진다.

고문헌에 따르면 영산재는 3일 동안 열리지만 이날 시연회는 2시간으로 축약해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무관중(비대면 온라인 생중계)으로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최명진기자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조사보고서 발간

국립광주박물관, 무덤 2기·유물 소개

국립광주박물관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2021년 지역학 연구 거점화 사업 일환이다.

신덕고분은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이 발굴한 삼국시대 무덤이다. 특히, 1호 무덤의 모양이 일본 고훈시대(古墳時代) 주요 무덤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비슷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발굴조사보고서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무덤 2기의 조사 내용과 함께 그곳에서 출토된 399건의 유물을 소개한다.

더불어 김갑중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국내 전문가와 다카타 간타(高田 貫太)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 등 3명의 일본인 전문가의 논고를 수록해 무덤의 성격을 추론했다.

노형신 학예연구사는 “호남지역에 산재한 14기의 장고분 중 신덕고분처럼 그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의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무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신덕고분



이 장고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다”고 말했다.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발굴조사보고서는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최명진기자

소리와 춤으로 만나는 판소리 한마당

내일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

지역 고유 문화적 소재를 중심으로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다채로운 판소리 한마당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3일 진악당에서 (사)동리문화사업회 ‘동리정사예술단(사진)’ 초청공연을 개최한다.

1990년 창립된 동리문화사업회는 동리 신재효



의 문화적 업적을 계승하고 판소리 연구·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꾼 8명과 8명의 반주자들이 무대를 준비했으며, 정병현 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해설도 함께한다.

공연은 ‘소리길 개척자 동학 재인부대’와 조선 최초의 여류 명창 ‘진체선의 소리길’을 주제로 한다.

‘소리길 동학 재인부대의 전설에 취하다’라는 제목의 1부 공연은 동학 농민군들의 기개를 담은 ‘고창동학농민혁명가(일어나라 이땅의 기운들아)’로 막을 올린다. 이어 적벽가를 각색한 ‘동학소리(적벽가 중 새타령 대목)’ 등이 무대에 오른다. /최명진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